2018년  한국인 출국이 연평균 2.6회로 4년 새 두 배로 늘었다.올해 한국인의 해외 여행은 5.9일로 작년(5.7일)보다 약간 늘었다.평균 해외소비 144만원일본은 관광 목적지는 한국인을 보면 해외 여행을 선호하는 인기의 29.2%는 응답자가 있거나 여행을 최근 중국은 7.8%이 뒤를 이었다.한국 응답자의 25%가 미국 여행을 가장 가고 싶다고 답했고, 그리스(21%), 뉴질랜드(18%), 스위스(16%), 독일(15%)이 2~4위를 차지했다.실제 한국인이 가장 많은 나라는 올라간 일본이다.한국인의 해외여행 동기는 '인생에 새로운 경험을 보태기 때문'(67%), '세계가 그렇게 크니 한번 가보고 싶다'(57%), '견견견증진'(48%) 등의 순이었다.